

유비쿼스 (078070)

기가 인터넷, M2M, 자산가치의 3중주



★★★★ : 매우 긍정적, ★★★ : 긍정적, ★★ : 중립, ★ : 다소 부정적, ☆ : 부정적

Not Rated

주가 (1월 29일) **8,480 원**

유성모 ☎ (02) 3772-1550
 ✉ mariayoo@shinhan.com

- ◆ 교체 수요 및 기가 인터넷 투자 본격화로 2014년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 기대
- ◆ 자회사 고성장 등으로 2014년 순이익 전년대비 4% 증가한 200억원 전망
- ◆ M2M 수혜주 부각과 함께 순현금성 자산 천억원 보유로 저평가 매력 확보

| | |
|----------------|-----------------|
| KOSPI | 1,941.15p |
| KOSDAQ | 515.20p |
| 시가총액 | 179.8 십억원 |
| 액면가 | 500 원 |
| 발행주식수 | 21.2 백만주 |
| 유동주식수 | 12.8 백만주(60.4%) |
| 52 주 최고/최저가 | 9,410 원/5,340 원 |
| 일평균 거래량 (60 일) | 130,193 주 |
| 일평균 거래액 (60 일) | 986 백만원 |
| 외국인 지분율 | 2.40% |
| 주요주주 | 이상근 외 8인 30.19% |

| | | |
|-----------|------|-------|
| 절대수익률 | 3개월 | 7.3% |
| | 6개월 | 1.1% |
| | 12개월 | 59.4% |
| KOSDAQ 대비 | 3개월 | 12.0% |
| 상대수익률 | 6개월 | 7.0% |
| | 12개월 | 56.8% |

UHD TV 확산 등 트래픽 증가에 따른 기가 인터넷 투자 본격화로 안정적 성장 전망

2013년부터 통신사의 유선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009년 FTTH(광랜) 투자 이후 교체주기가 도래했다. 2017년을 목표로 기가 인터넷 투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 90% 지역에 기가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말 커버리지비율은 16.8%이다. IPTV 및 UHD 시장 확산 등으로 유선망 고도화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용량 스위치 등에서 절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2013년 매출액 1,078억원(+45%, 이하 YoY, 별도기준), 영업이익 193억원(+42%)이 전망된다. 유선망 교체주기 도래와 망 고도화, 수출 확대로 향후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 2014년은 LTE 백홀 수주 감소, 기고효과가 있어 매출액과 영업이익(별도기준)은 1,098억원(+2%), 197억원(+2%)가 전망된다.

M2M 수혜 = 유선망 고도화 투자 + 자회사 M2M 모듈 매출 기대

2014년부터는 센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WiFi 등 단거리 통신 영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크게 늘어나지만 보안이나 사회안전망 등에 따른 유선망 고도화 투자도 진행되어야 한다.

모바일에코(지분율 51%)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LTE 라우터 전문업체로 2013년 하반기 유플러스와 SKT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SKT M2M(사물인터넷)용 라우터와 통신 모듈을 개발함에 따라 향후 M2M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높다. 2013년 매출액 86억원, 순이익 9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신규고객 확보로 30%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M2M 모듈 매출 발생도 기대된다.

현금성 자산 1천억원, 매년 200억원 규모 순이익 감안시 저평가

2013년말 기준 약 1천억원의 순현금성자산(비유동자산내 국공채 투자 등 금융자산 포함)과 자사주 2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200억원 수준의 순이익도 예상된다. 낮은 성장성을 감안해도 시가총액 1,798억원은 매력적이다.

| 12월 결산 | 매출액 (억원) | 영업이익 (억원) | 세전이익 (억원) | 순이익 (억원) | EPS (원) | 증가율 (%) | BPS (원) | PER (배) | EV/EBITDA (배) | PBR (배) | ROE (%) | 순부채비율 (%) |
|--------|----------|-----------|-----------|----------|---------|---------|---------|---------|---------------|---------|---------|-----------|
| 2011 | 736.6 | 134.6 | 190.5 | 159.6 | 756 | (21.2) | 5,994 | 5.9 | 1.1 | 0.7 | 12.6 | (62.4) |
| 2012 | 748.2 | 122.7 | 189.5 | 149.5 | 713 | (5.8) | 6,654 | 7.1 | 3.0 | 0.8 | 11.3 | (47.4) |
| 2013F | 1,165.0 | 186.6 | 229.9 | 191.3 | 891 | 25.0 | 7,390 | 8.7 | 5.1 | 1.0 | 12.7 | (38.8) |
| 2014F | 1,213.2 | 194.2 | 244.2 | 199.7 | 920 | 3.3 | 8,229 | 9.2 | 5.3 | 1.0 | 11.8 | (37.4) |
| 2015F | 1,311.3 | 214.1 | 270.7 | 221.7 | 1,017 | 10.4 | 9,160 | 8.3 | 4.5 | 0.9 | 11.7 | (38.3) |

주: K-IFRS 연결 기준임

FTTH: 광케이블 가입자망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설치 방식의 한 종류

EPON: 이더넷 기반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기술, 증폭기 등을 없애 비용 및 효율화를 꾀함

OLT: 광 회선장비로 전회국 등에서 사용되는 가입자 장비

백홀: 기지국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백본망으로 전송하는 장비

캐리어이더넷: 국내 90% 이상의 통신방식인 이더넷을 통신사업자가 쓸수 있도록 안정성까지 확보한 인터넷으로 AHP 시대 도래로 주목 받고 있음

유선 통신장비 전문업체로 망 고도화에 따른 시장 지배력 강화 기대

유선망 가입자 집선장비 전문업체다. 스위치(L2, L3, 대용량), FTTH용 장비(EPON, OLT), LTE 백홀, 캐리어이더넷 등을 생산하고 있다. 대용량 스위치 및 FTTH 장비에 국내 경쟁사대비 강점이 있다. 유플러스와 KT가 주요 거래처이며 다산네트웍스(039560)가 경쟁사이다. 국내 유일의 대용량 OLT 장비 생산업체로서의 경쟁력으로 2013년 KT내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며 매출성장에 일조했다.

국내 유선 통신장비 시장은 수년간의 정체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체들의 실적 및 기술개발력 둔화가 나타났다. 동사는 매년 100억원 이상을 R&D에 투자(전액 비용 처리)하고 있다. 향후 트래픽 증가에 따른 기가 인터넷 등 망 고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용량 장비에 강점을 가진 동사 제품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기가 인터넷 투자 본격화로 성장 기반 마련, 수익성 악화 우려 해소

2009년 FTTH 투자 이후 3~5년인 교체주기가 도래했다. 기가 인터넷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2017년 전국 90% 지역 통신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2년 10.4% 커버리지에서 2013년은 16.8%까지 상승했다. 미래부가 계획한 15%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IPTV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UHD에 대한 수요도 확산될 전망이다. 망 고도화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이유다. 대용량 집선 장비를 보유한 동사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2014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 증가한 1098억원이 예상된다. 유선망 교체 수요 및 기가 인터넷 발주 확대에 따른 대용량 장비 수혜에도 불구하고 기고효과와 유플러스향 LTE 백홀장비 수주 감소로 성장률은 낮을 전망이다. L2, L3 스위치류의 단가인하 영향으로 하락하던 수익성은 점진적 회복이 기대된다. 기가 인터넷 장비는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2014년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동일한 17.9%, 2015년에는 18%가 기대된다.

게임 자회사 실적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엔틱스게임즈(지분율 88.1%)의 실적도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013년 매출액 1억원, 순손실 16억원이 예상된다. 일본에서 서비스중인 '새도 오브 이클립스'가 iOS 버전 출시, 대만 및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연말까지 월별 흑자전환이 목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임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유상증자를 통해 동사 자금이 수혈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매출액 3억원, 순손실 14억원을 예상한다. 2015년에도 10억원 이상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 정리 가능성을 기대한다.

M2M에 거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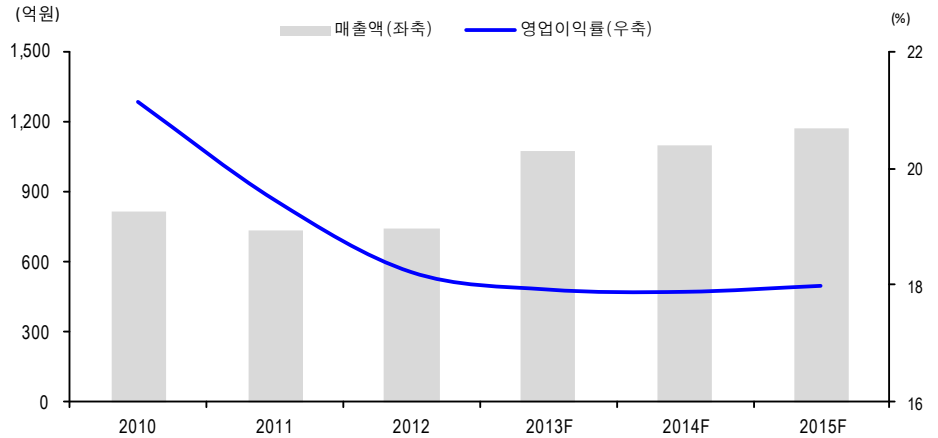
M2M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성장성이 예상된다. 센서 및 모듈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고 있고 국제 표준화 추진,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이 맞물리면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된다. 금년 CES의 최대 화두도 M2M이었다. M2M 성장으로 유무선 통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좁은 공간내에서의 통신은 지그비, WiFi 등의 무선통신이 이용되거나 보안이나 스마트미터, 사회 안전망 등은 유선 통신 사용량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더 많은 데이터량은 더 큰 용량의 장비 수요를 수반한다. 동사의 중장기 안정적 성장을 예상하는 근거다.

모바일에코(지분율 51%) 성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라우터에 M2M 라우터와 통신 모듈이 가세했다. 모바일에코는 일본 수출과 LG 유플러스 및 SKT 고객 확보로 매출액이 2012년 3억원에서 2013년 86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SKT가 6월, 유플러스가 12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금년에도 고성장이 기대된다.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 또는 사물인터넷): 모든 사물에 센서 및 통신 기능을 결합해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전달하는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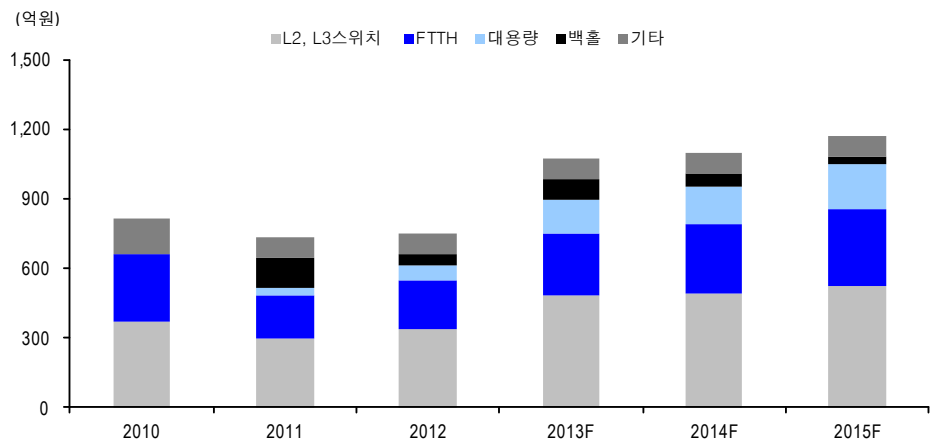
M2M 모듈에서의 매출 가시화도 예상된다. 유럽, 북미, 일본, SKT용 통신모듈을 모두 개발했다. 2014년에는 M2M 시장 확대에 따른 투자와 함께 모듈 매출도 기대한다. 모바일에코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다정보통신(149940)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모바일에코 지분에 대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유비쿼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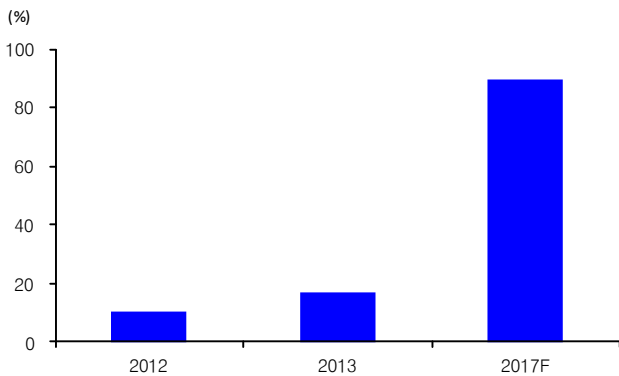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유비쿼스의 제품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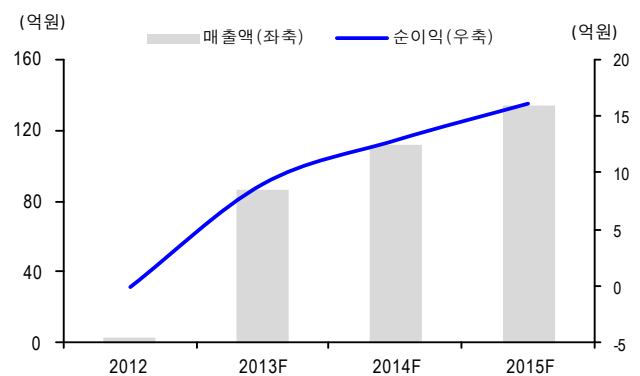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정부의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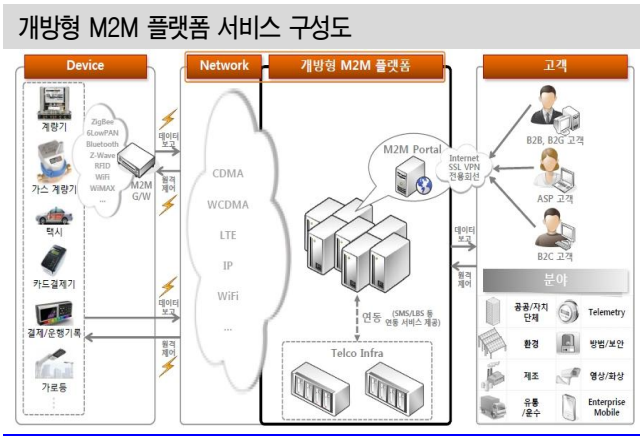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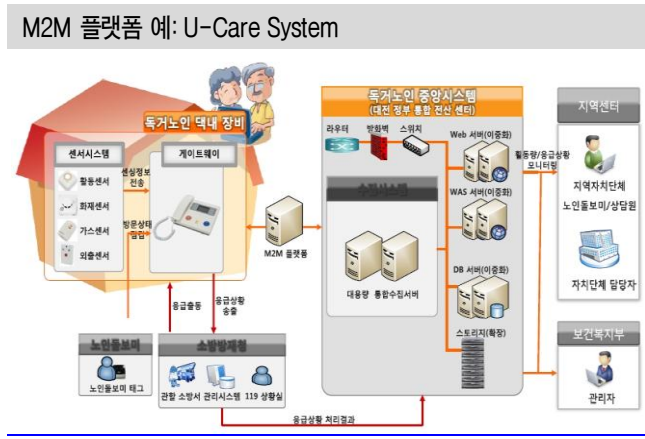
모바일에코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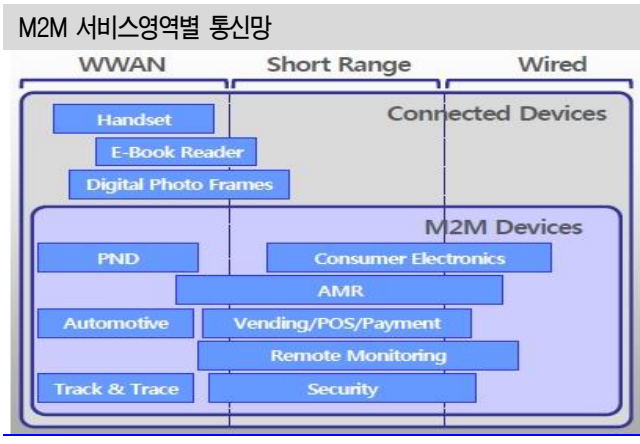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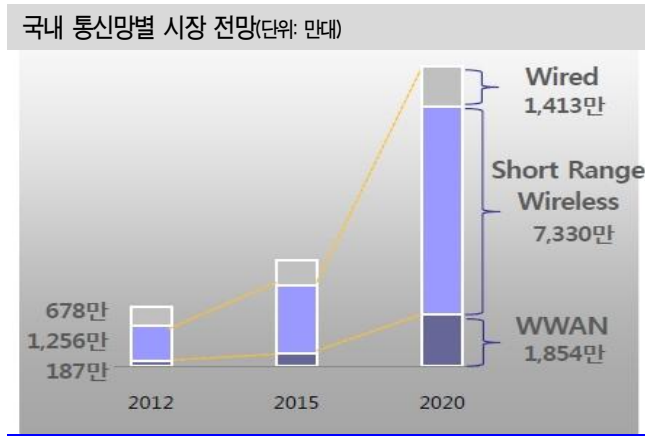
자료: SK텔레콤,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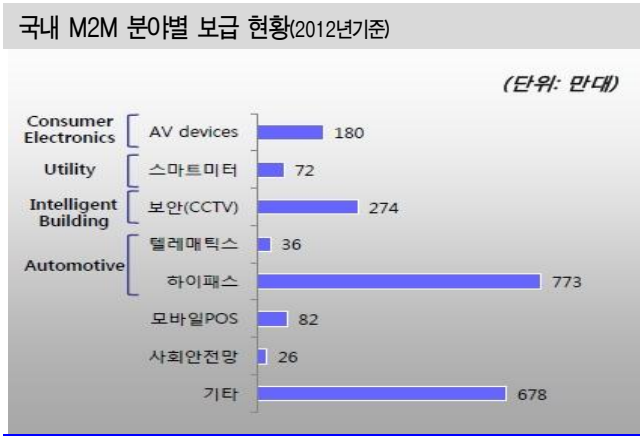
자료: SK텔레콤,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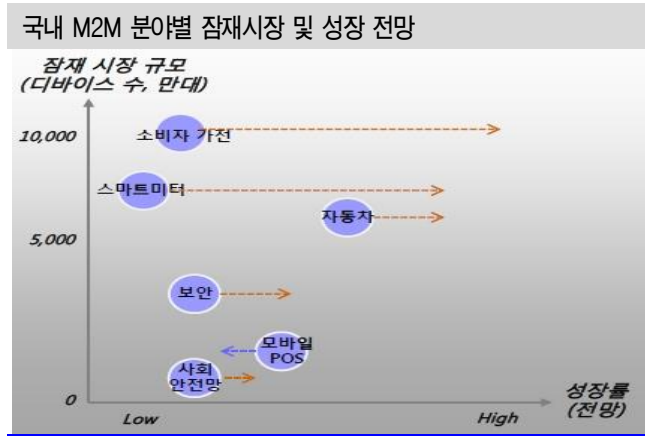
자료: Gartner, KT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 신한금융투자



자료: GSMA & Machina Research, KT경제경영연구소 재구성, 신한금융투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KISDI, 신한금융투자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신한금융투자

재무상태표

| 12월 결산 (억원) | 2011 | 2012 | 2013F | 2014F | 2015F |
|------------------|----------------|----------------|----------------|----------------|----------------|
| 자산총계 | 1,492.1 | 1,668.1 | 1,829.2 | 2,023.8 | 2,250.5 |
| 유동자산 | 1,013.8 | 906.7 | 840.5 | 906.3 | 1,019.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6 | 185.7 | 163.0 | 162.3 | 195.1 |
| 매출채권 | 89.3 | 96.6 | 116.0 | 127.6 | 137.9 |
| 재고자산 | 86.1 | 66.3 | 79.6 | 87.6 | 95.5 |
| 비유동자산 | 478.4 | 761.3 | 988.7 | 1,117.5 | 1,230.6 |
| 유형자산 | 118.5 | 159.1 | 374.1 | 459.6 | 512.9 |
| 무형자산 | 9.6 | 47.8 | 50.0 | 51.8 | 53.4 |
| 투자자산 | 340.0 | 546.6 | 556.7 | 598.2 | 656.4 |
| 기타금융투자자산 | 0.0 | 0.0 | 0.0 | 0.0 | 0.0 |
| 부채총계 | 221.0 | 251.9 | 254.6 | 266.6 | 289.7 |
| 유동부채 | 182.9 | 230.4 | 221.1 | 229.8 | 247.5 |
| 단기차입금 | 36.7 | 55.5 | 11.5 | 11.5 | 11.5 |
| 매입채무 | 63.5 | 60.2 | 66.3 | 69.0 | 74.6 |
| 유동성장기부채 | 0.0 | 0.0 | 0.0 | 0.0 | 0.0 |
| 비유동부채 | 38.2 | 21.5 | 33.4 | 36.7 | 42.2 |
| 사채 | 0.0 | 0.0 | 0.0 | 0.0 | 0.0 |
|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 0.0 | 0.0 | 0.0 | 0.0 | 0.0 |
| 기타비유동부채 | 0.0 | 0.0 | 0.0 | 0.0 | 0.0 |
| 자본총계 | 1,271.1 | 1,416.2 | 1,574.7 | 1,757.2 | 1,960.8 |
| 자본금 | 106.0 | 106.0 | 106.0 | 106.0 | 106.0 |
| 자본잉여금 | 69.0 | 69.0 | 69.0 | 69.0 | 69.0 |
| 기타자본 | (96.1) | (96.1) | (96.1) | (96.1) | (96.1) |
| 기타포괄이익누계액 | 8.4 | 16.4 | 2.8 | 4.8 | 5.8 |
| 이익잉여금 | 1,183.3 | 1,315.2 | 1,484.8 | 1,660.8 | 1,857.1 |
| 지배주주지분 | 1,270.7 | 1,410.6 | 1,566.6 | 1,744.5 | 1,941.9 |
| 비지배주주지분 | 0.4 | 5.6 | 8.1 | 12.7 | 18.9 |
| *총차입금 | 39.1 | 55.5 | 11.5 | 11.5 | 11.5 |
| *순차입금(순현금) | (792.6) | (671.3) | (611.4) | (656.7) | (750.3) |

포괄손익계산서

| 12월 결산 (억원) | 2011 | 2012 | 2013F | 2014F | 2015F |
|-----------------|--------------|--------------|----------------|----------------|----------------|
| 매출액 | 736.6 | 748.2 | 1,165.0 | 1,213.2 | 1,311.3 |
| 증가율 (%) | (9.9) | 1.6 | 55.7 | 4.1 | 8.1 |
| 매출원가 | 410.6 | 440.8 | 673.2 | 697.3 | 749.6 |
| 매출총이익 | 326.0 | 307.4 | 491.8 | 515.9 | 561.7 |
| 매출총이익률 (%) | 44.3 | 41.1 | 42.2 | 42.5 | 42.8 |
| 판매관리비 | 191.5 | 184.7 | 305.2 | 321.8 | 347.6 |
| 영업이익 | 134.6 | 122.7 | 186.6 | 194.2 | 214.1 |
| 증가율 (%) | (18.6) | (8.8) | 52.0 | 4.1 | 10.3 |
| 영업이익률 (%) | 18.3 | 16.4 | 16.0 | 16.0 | 16.3 |
| 영업외손익 | 55.9 | 66.7 | 43.4 | 50.0 | 56.6 |
| 금융손익 | 51.6 | 59.8 | 43.5 | 48.5 | 53.6 |
| 기타영업외손익 | 4.3 | 6.9 | (0.1) | 1.5 | 3.0 |
| 중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 0.0 | 0.0 | 0.0 | 0.0 | 0.0 |
| 세전계속사업이익 | 190.5 | 189.5 | 229.9 | 244.2 | 270.7 |
| 법인세비용 | 30.9 | 39.9 | 38.6 | 44.4 | 49.0 |
| 계속사업이익 | 159.6 | 149.5 | 191.3 | 199.7 | 221.7 |
| 중단사업이익 | 0.0 | 0.0 | 0.0 | 0.0 | 0.0 |
| 당기순이익 | 159.6 | 149.5 | 191.3 | 199.7 | 221.7 |
| 증가율 (%) | (20.0) | (6.3) | 28.0 | 4.4 | 11.0 |
| 순이익률 (%) | 21.7 | 20.0 | 16.4 | 16.5 | 16.9 |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160.4 | 151.1 | 188.8 | 195.1 | 215.5 |
|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 (0.8) | (1.5) | 2.5 | 4.6 | 6.2 |
| 총포괄이익 | 159.6 | 158.5 | 177.7 | 201.7 | 222.7 |
| (지배주주)총포괄이익 | 160.4 | 160.0 | 179.5 | 203.7 | 224.9 |
|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 (0.8) | (1.5) | (1.7) | (2.0) | (2.2) |
| EBITDA | 145.5 | 134.5 | 204.4 | 216.8 | 239.3 |
| 증가율 (%) | N/A | (7.5) | 51.9 | 6.1 | 10.4 |
| EBITDA 이익률 (%) | 19.8 | 18.0 | 17.5 | 17.9 | 18.2 |

주: 영업이익은 2012년 개정 K-IFRS 기준(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

현금흐름표

| 12월 결산 (억원) | 2011 | 2012 | 2013F | 2014F | 2015F |
|---------------------|----------------|----------------|----------------|----------------|----------------|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63.7 | 148.1 | 212.2 | 207.6 | 243.6 |
| 당기순이익 | 159.6 | 149.5 | 191.3 | 199.7 | 221.7 |
| 유형자산상각비 | 8.4 | 8.8 | 10.0 | 14.5 | 16.7 |
| 무형자산상각비 | 2.5 | 3.0 | 7.8 | 8.2 | 8.5 |
| 외화환산손실(이익) | 0.7 | (3.1) | 0.0 | 0.0 | 0.0 |
| 자산처분손실(이익) | 1.6 | 0.0 | 0.0 | 0.0 | 0.0 |
| 지분법, 중속, 관계기업손실(이익) | 0.0 | 0.0 | 0.0 | 0.0 | 0.0 |
| 운전자본변동 | (11.0) | (18.7) | 1.6 | (15.8) | (4.2) |
| (법인세납부) | (22.5) | (27.9) | (38.6) | (44.4) | (49.0) |
| 기타 | 24.4 | 36.5 | 40.1 | 45.4 | 49.9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1.6) | (122.9) | (179.0) | (196.5) | (199.0) |
| 유형자산의증가(CAPEX) | (103.8) | (50.7) | (225.0) | (100.0) | (70.0) |
| 유형자산의감소 | 0.1 | 0.0 | 0.0 | 0.0 | 0.0 |
| 무형자산의감소(증가) | (3.3) | (36.2) | (10.0) | (10.0) | (10.0) |
| 투자자산의감소(증가) | (154.3) | (309.8) | (23.7) | (39.5) | (57.2) |
| 기타 | 249.7 | 273.8 | 79.7 | (47.0) | (61.8) |
| FCF | N/A | 91.2 | (55.0) | 69.7 | 128.1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24.7) | 27.9 | (63.2) | (19.2) | (19.2) |
| 차입금의 증가(감소) | (20.8) | 34.6 | (44.0) | 0.0 | 0.0 |
| 자기주식의처분(취득) | 95.9 | 0.0 | 0.0 | 0.0 | 0.0 |
| 배당금 | (10.6) | (19.2) | (19.2) | (19.2) | (19.2) |
| 기타 | (189.2) | 12.5 | (0.0) | 0.0 | 0.0 |
| 기타현금흐름 | 0.0 | 0.0 | 7.3 | 7.3 | 7.3 |
|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 0.0 | 0.0 | 0.0 | 0.0 | 0.0 |
| 환율변동효과 | 0.0 | (0.1) | 0.0 | 0.0 | 0.0 |
| 현금의증가(감소) | 27.3 | 53.1 | (22.7) | (0.8) | 32.8 |
| 기초현금 | 105.3 | 132.6 | 185.7 | 163.0 | 162.3 |
| 기말현금 | 132.6 | 185.7 | 163.0 | 162.3 | 19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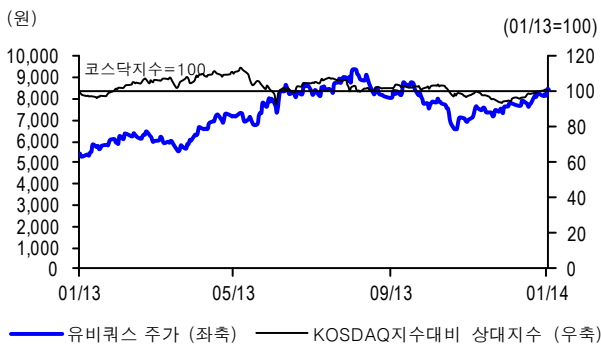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주요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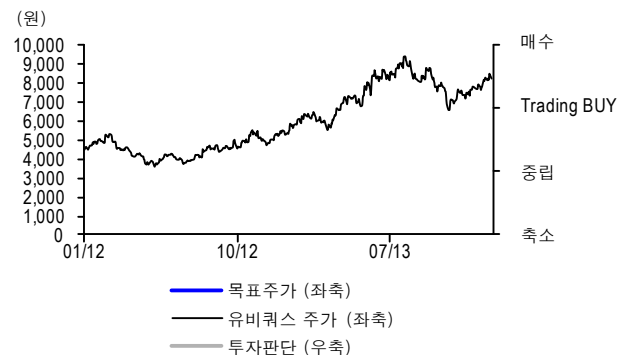
| 12월 결산 | 2011 | 2012 | 2013F | 2014F | 2015F |
|----------------|--------|--------|--------|--------|--------|
| EPS (당기순이익, 원) | 753 | 705 | 902 | 942 | 1,046 |
| EPS (지배순이익, 원) | 756 | 713 | 891 | 920 | 1,017 |
| BPS (자본총계, 원) | 5,996 | 6,680 | 7,428 | 8,289 | 9,249 |
| BPS (지배지분, 원) | 5,994 | 6,654 | 7,390 | 8,229 | 9,160 |
| DPS (원) | 100 | 100 | 100 | 100 | 100 |
| PER (당기순이익, 배) | 6.0 | 7.1 | 8.6 | 9.0 | 8.1 |
| PER (지배순이익, 배) | 5.9 | 7.1 | 8.7 | 9.2 | 8.3 |
| PBR (자본총계, 배) | 0.7 | 0.8 | 1.0 | 1.0 | 0.9 |
| PBR (지배지분, 배) | 0.7 | 0.8 | 1.0 | 1.0 | 0.9 |
| EV/EBITDA (배) | 1.1 | 3.0 | 5.1 | 5.3 | 4.5 |
| EV/EBIT (배) | 1.2 | 3.3 | 5.5 | 5.9 | 5.0 |
| 배당수익률 (%) | 2.2 | 2.0 | 1.3 | 1.2 | 1.2 |
| 수익성 | | | | | |
| EBITDA 이익률 (%) | 19.8 | 18.0 | 17.5 | 17.9 | 18.2 |
| 영업이익률 (%) | 18.3 | 16.4 | 16.0 | 16.0 | 16.3 |
| 순이익률 (%) | 21.7 | 20.0 | 16.4 | 16.5 | 16.9 |
| ROA (%) | 10.7 | 9.5 | 10.9 | 10.4 | 10.4 |
| ROE (지배순이익, %) | 12.6 | 11.3 | 12.7 | 11.8 | 11.7 |
| ROIC (%) | N/A | 52.4 | 48.2 | 33.0 | 31.3 |
| 안정성 | | | | | |
| 부채비율 (%) | 17.4 | 17.8 | 16.2 | 15.2 | 14.8 |
| 순차입금비율 (%) | (62.4) | (47.4) | (38.8) | (37.4) | (38.3) |
| 현금비율 (%) | 72.5 | 80.6 | 73.7 | 70.6 | 78.8 |
| 이자보상배율 (배) | 205.5 | 125.1 | 214.4 | 650.9 | 717.8 |
| 활동성 | | | | | |
| 순운전자본회전을 (회) | 19.2 | 34.6 | 180.3 | 87.6 | 62.6 |
|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 42.7 | 37.2 | 22.9 | 25.2 | 25.5 |
|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 44.3 | 45.4 | 33.3 | 36.6 | 36.9 |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주가 추이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투자등급 (2011년 7월 25일부터 적용) : 매수 : +15% 이상, Trading BUY : 0~15%, 중립 : -15~0%, 축소 : -15% 이하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유성모)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